

골목길 소생 프로젝트의 딜레마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대하여

김은하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인상적으로 보여 주었듯이 과거 골목은 이웃이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놀이에 몰두한 아이들의 웅성거림으로 활기가 넘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금 골목은 정겹기는커녕 외지고 음습한 느낌을 풍기는 주변부로 전락하고 있다. 철 대문 우편함 속 고지서와 쓰레기통을 뒤지는 길고양이에게 공간을 내주었다고 할 만큼 골목은 인간의 온기와 활기를 잃어버렸다. 국가 부도 사태 이후 파산의 시간이 도래하면서 골목의 삶은 위기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IMF 사태는 한국전쟁 이후 민족 최대의 환란이라고 일컬어지지만, 기실 고난은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아 골목은 수십의 그림자를 깊이 드리우며 침몰 중이다. 그러나 골목은 어느 누구도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는 잊힌 섬이기도 하다. 그런데 외진 골목길에 관심을 기울이는 프로그램이 있어 눈길이 간다. 바로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방송가에서 이제는 진부해진 ‘요리’라는 소재를 취하고 있지만 골목, 즉 소외된 서민의 삶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참신한 프로그램이다. “전체 자영업 중 폐업 업종 1위 ‘식당’! 하루 평균 3,000명이 식당을 시작하고, 2,000명이 식당을 폐업한다! …… 요식업 대선배 백종원 대표가 각 식당의 문제 케이스를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 식당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교본’이 되어줄 프로그램!”이라는 기획 의도는 제작자들이 골목 안쪽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직장을 잃거나 혹은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이들은 자신의 마지막 자산을 털어 기도하듯 창업을 하지만 골목 안의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각자의 절박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골목 안 식당들은 큰길의 프랜차이즈 음식점들과, 할인 쿠폰까지 쥐어주며 떡볶이조차 권하는 홈쇼핑이라는 공룡과 경쟁해야 한다. 늙은 개의 어슬렁대는 기척마저 반가울 만큼 골목을 찾아오는 이들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도 없이 털썩 개업을 해 사장을 겸한 노동자가 된 이들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만약 신이 있어 지금 강림해야 할 곳이 있다면 골목 안일 것이다. 오늘은 가게를 열지만 내일은 꼼짝없이 난민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골목길 소생 프로젝트’는 시의적절하기도 하지만 은근한 감동조차 불러일으킨다. 이 프로그램은 산골에서 해 먹든, 할머니가 해주든,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들과 함께 먹든지 간에, 먹는다는 본질에 충실한 요리 프로들이 줄 수 없는 인간적 공감을 안겨준다. 거기에는 땀내, 짠 내 나는 사람들의 삶이 리얼하게 담겨 있다. “회기동 골목식당 편”이 보여주었듯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한 편의 이야기다. 영상 속 중년의 남자는 연거푸 사업에 실패하고 어머니의 마지막 씌짓돈으로

음식점을 열었지만 월세조차 버겁기만 하다. 그에게 요식업은 단지 이익을 위한 계획과 투자가 아니라 평생 노동을 한 어머니의 땀이고, 효도하지 못한 자기에 대한 미움이다. 그는 눈물 없이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텔레비전 바깥의 시청자 역시 살아 가는 일의 엄숙한 무게 앞에 코끝이 찡해진다. 라면을 10개씩 끓여 한 번에 먹는 기괴한 쾌락을 사랑하는 유튜브로는 채워지지 않은 인간적인 감동이 가슴 깊이 차오르는 것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모종의 찝찝한 기분을 안겨준다. 이 몽클한 감동을 흘트려 놓는 불편한 감정은 어디서 기원하는가? 방송의 크고 심원한 영향력을 염두에 두며 다소 불편한 질문들을 던져 보고자 한다. 먼저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서민을 위한 프로그램인가, 기업가 백종원을 위한 프로그램인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백종원은 아마도 최근 방송계가 발굴한 가장 참신한 스타일 것이다. 지금 그는 어떤 정치인보다 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회 명사이자 스타이지만 기실 전국에 수많은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요식업계의 대표적 사업가다. 사업가 백종원이 일명 '백 주부'라는 친숙한 별칭으로 전 국민적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과정은 최근 한국 사회의 급속한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경제 불안으로 결혼이 무기한 유예되어 1인 가족이 늘고, 질 낮은 일자리가 늘면서 남성 부양자/여성 전업주부 모델이 깨져, 먹는다는 문제가 전 국민적 고민거리로 대두해 셰프들의 시대가 열렸다. 백종원은 요리사가 아니지만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현실 요리들을 선보이며 한순간에 대중의 스타가 되었다. 명문대 출신이지만 푸근한 인상으로 가성비 높은 요리를 전파하며 서민의 배고픔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다. 그런 그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단지 요리법을 알려주는 데 머물지 않고 위기에 처한 골목 식당들을 구하는 조력자 혹은 코디네

이터로 나섰다.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가게들을 화타가 병자를 구하듯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새로운 레시피로 재생의 방안을 제시하며 구조에 나선 것이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진정성은 백종원의 진정성과 구별되기 어렵다. 그는 단지 요식업과 관련한 기술을 전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을 다해 한 사람의 삶을 쓰다듬고 인생을 구하고자 한다. 가령 “원주 골목식당 편”에서 아들을 잃고 장사에 나선 할머니 사장님에게 백종원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레시피가 아닌 마음이었다. 그는 고령의 사장님이 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손님이 실망하고 가게의 평판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며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는 글을 썼다. 사람들이 단지 할머니의 음식을 사 먹는 게 아니라 할머니를 응원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는 단지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영혼 없는 자본가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인간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 프로그램은 백종원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들의 광고 역할을 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이 프로그램은 백종원의 사업체에서 제작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손해 보는 쪽은 백종원인 것처럼 보인다. 그는 자신이 오랜 시간 연구해 온 레시피를 통해 메뉴를 제안하고 가게 운영과 관련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는 절박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투자를 포기했다. 그렇게 그에게 코디를 받은 음식점들은 폐점의 위기를 극복했고, 더러는 ‘대박’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백종원이 가져가는 유·무형의 이익이 크고, 그것이 결국 골목 식당들을 위협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골목길 프로젝트는 ‘선(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백종원은 요리에 대한 타고난 감각과 노력 덕분에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사회에 음식 체인점들을 만들어 골목 상권을 장악해 온 골목의 전설이다. 이는 그가 아무리 진정성을 가지

고 서민을 응원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대중의 호감이 그가 하는 사업의 매출로 이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성공은 골목길 영세 상인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무자각적으로 백종원의 체인점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의 선한 행위는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투자, 즉 자사 브랜드에 대한 홍보와 호감도 상승을 위한 일종의 마케팅과 결과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죽어가는 점포 몇 개를 살리면서 다수의 점포들을 무너뜨리는 영리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비록 방송에 출연한 골목에는 백종원의 프랜차이즈가 없다고 해도 담 하나만 넘으면 그의 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미 그 자신이 하나의 표상이 된 백종원이 한국 사회에 어떤 사회적·문화적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인간은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 계발론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단순히 기술 혹은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을 넘어 인간 개조 프로젝트의 양상을 띤다. 제작진은 이 프로그램에 문학이나 영화 같은 서사 장르에서 볼 수 있는 플롯을 도입한다. 한 사람의 문제가 많은 신참자가 훌륭한 스승을 만나 갈등을 겪지만 끝내 스승의 도움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 성공에 이른다는 인간성 개조와 성공의 서사를 훌륭하게 전유한다. 호통치는 스승과 스승의 진심을 모르고 돌출 행동을 일삼는 제자의 구도, 그리고 이 둘 간을 휩싸고 도는 긴장은 자칫 교과서처럼 밋밋하고 지루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드라마적 속성을 부여한다. “포방터 닭곰탕집 청년편”의 서사는 아마도 이 프로그램이 도달할 수 있는 이야기의 최대치일 것이다.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그에게 백종원은 부재

하는 아버지를 대신할 큰형님으로 청년의 개조를 이끈다. 그는 이미 늙은 청년이지만 근로 의욕을 상실한 채 늙은 어머니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 루저 청년을 표상한다. 그러나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그가 어떤 기질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좋은 스승만 있다면 훌륭한 재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청년은 몇 번의 극적 사건을 통해 무기력과 게으름을 떨쳐내고 근로하는 청년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기쁨을 느낀다. 한 사람의 문제적인 청년이 교정되면서 그의 가족에게 희망이 싹텃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극적 구조는 후원이라는 그럴듯한 명분하에 한 개인을 시청자가 미워해도 좋은 대상으로 만들어 흥행 도구로 써먹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인해 이 프로그램은 종종 방송에 출연한 참여자들의 사생활과 인간적 존엄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상식을 무시하기도 한다. “신촌 노부부 편”은 공중파가 한 개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공개적 망신주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종원의 코디로 성공을 거두었으면서 이후 약속을 어겨 메뉴를 다양화하고, 레시피를 바꾸는 등 방송사와의 약속을 저버린 노부부를 두둔할 마음은 없다. 노부부는 백종원의 레시피인 것처럼 손님을 속여 부당하게 이익을 거머쥔 게 분명하다. 이렇듯 약속의 파기라는 돌발적 상황은 백종원을 포함한 제작진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을 것이다. 진실을 모르는 손님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윤리적 명분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그러나 사적인 방식으로 노부부에 대한 징계를 고민하는 대신에 공중파라는 거대 권력이 전 국민 앞에 노부부의 죄를 까발린 것은 과도한 처벌처럼 여겨진다. 물론 망신 주기조차 노부부와 계약, 즉 방송의 준비된 내용이었다고 해도 도덕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 손님을 끌어모아 불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도덕적 비난조차 상술로서 이용하라

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망신주의는 개인의 인권침해라는 점에서도 문제지만 사회에 더 유독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더 심각하다.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살아남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시대를 맞아 생존 앞에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시청자에게 강요한다는 데 있다. 우리 시대에 살아남는다는 것은 외면하기 어려운 정언명령이 되었다. 국가 부도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생존주의다. 그것이 사회에 활력을 가져온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생존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회에서는 다른 인간적 가치들은 외면되기 쉽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생존주의에 지배되는 사회에서 시는 그저 아무런 실용적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하듯이, 인간과 사회가 지켜야 할 인간다운 가치들이 외면되기 쉬운 것이다. 방송은 이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타인의 삶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프로그램에 적용하지 못한 이들을 조롱거리 삼아야 유한다. 당사자들이 처한 다양 다기한 사연은 무시되고 군중은 오로지 적용과 순종을 선택한 이들에게 칭찬을,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비난을 퍼붓는다. 폭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근면과 성실이 최고의 가치라는 믿음, 그리고 그것은 매출을 통해 확인된다는 믿음일 것이다.

“숙대 골목식당 편”은 이 모든 도덕적 착각이 낳은 폭력의 정점처럼 여겨진다. 이 프로그램에서 외국 유학과 출신 청년들은 대중의 못매를 맞았다. 자신에게 요식업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한 장이라고 눈치 없이 말하는 이 청년은 생존의 절박한 위기에 처한 대중의 소외감을 자극했고, 방송은 대중의 계급적 박탈감을 적절히 활용했다. 그가 건물주의 아들이라는 사생활이 알려지고 그의 틱 장애는 연민이 아니라 혐오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어떤 대상을 통해 도드라지는 나의 가난과 소외

감이 누군가를 증오해도 좋을 자격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에게 식당은 엄숙한 생존의 무게가 아니다. 테니스를 배우고 영어 봉사 활동을 하며 살고 싶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철학이다. 물론 누군가는 그의 음식점에 들러 맛있는 음식을 먹는 불운을 겪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그를 비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삶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과 입장들을 무시하도록 은밀히 강요한다.

숙대 골목의 늙은 청년에게는 아마도 치열한 경쟁에서 스스로 탈락해 게으름을 부려야만 하는 내적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삶이 모두에게 꼭 치열한 전투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전투를 치를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아마도 늙은 청년이 두려워한 것은 노력을 해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비난이 두려워서는 아니었을까? 이 프로그램은 인간은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위에서 있다. 사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러한 믿음은 흔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사람들의 혐오 대상이 되는 것은 가난을 자기 계발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곤의 원인은 훨씬 더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운의 문제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성공은 기실 주체의 노력 문제가 아니라 운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실패는 곧 개인의 불성실의 문제로 화한다. 바로 이 점이 우리 시대 청년들이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짊어진 고독일 것이다.

사족처럼 한마디 덧붙인다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시장의 자연 경쟁에 방송이 개입해 골목 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포방터의 돈가스집은 시장을 떠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시장 상인들이 돈가스집에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웃의 불만을 단지 돈가스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상인들이 겪는

불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돈가스집의 흥행으로 인해 시장이 얻을 이익이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갈등의 핵심에는 시기심이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방송이 시장 질서에 개입해 누군가에 성공을, 다른 누군가에는 좌절감을 안겨주었기에 시기심이 발생했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시기심은 누군가의 성공이 행운이라는 판단에 따른 분노로서 공정성을 요청하는 민주주의적 감정이기도 하다. 즉, 특정 집포는 흥행을 거두었지만 가게 재생을 통해 골목 전체를 살리겠다는 프로그램 취지는 무색해지고 오히려 상인들의 관계가 틀어지는 데 영향을 준 것이다. 골목길 상인들은 더 이상 평등하지 않게 되었기도 하지만, 그 격차가 발생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풀지 못한 문제들이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서민들이 겪는 위기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개인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 여하와 무관한 경우도 허다하다. 한국의 외환위기는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국가가 잘못하면 인간은 언제든 지노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자기 계발의 문제로 몰고 가는 성공학 담론들은 아마도 가난의 진정한 원인을 은폐하는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글로벌 마트들이 매장을 줄이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 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백종원 역시 홈쇼핑이라는 공룡에 떠밀려 폐점을 하거나 앞으로 배달 음식을 판매하는 식으로 전략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이러한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가며 살아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이상 근면과 성실, 적절한 전략만으로 골목의 평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절이 올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찌면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가성비 높은 식당을 만들어 입맛을 획일화하기보다는 저마다 개성을 찾고 인간적인 가치들에 더 주목하는 상상력인지도 모른다. 백종원의 방식은 오래전 자수성가의 시대에서 온 구태의연한 아이디어처럼도 보인다.